D반 오하라　―　その他 (2017-09-06)

1. 30초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일본학과 융합소프트웨어학을 전공한 오하라라고 합니다. 저는 2년 간 대학의 연구실에 있으면서 일본이 신기술의 발전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본에서 일하며 IT분야의 발전을 주도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최근 관심이 있는 것

저는 가상현실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상상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마법을 쓰거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를 상상해왔습니다. 최근, 가상현실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VR기기를 이용한 다양한 테마의 가상현실게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컴퓨터와 사용자의 뇌 간에 직접적인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인터페이스 장치를 통한 제한적인 가상현실밖에 구현할 수 없지만, 언젠가 더욱 기술이 발전한다면 가상현실 안에서 실제로 감각을 통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현실을 통해 제가 상상해오던 것들을 꼭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1. 존경하는 사람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10년 동안 아이돌 그룹 AKB48의 총감독이었던 다카하시 미나미입니다. 다카하시씨는 총감독으로서 300명이 넘는 대인원을 관리하고 스태프와 팀 멤버와의 의견도 조율해야 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배려하고 힘들어할 때 상담해주며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도우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누구보다도 노력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깊었습니다. 그리고 AKB48 총선거 연설에서 「노력이 반드시 보답 받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노력하는 사람이 보답 받았으면 합니다. 노력은 반드시 보답 받는다고, 저 다카하시 미나미는 인생을 걸고 증명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에 매우 감동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는다고 말만 하고 전혀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노력하는 사람이 말하는 노력에는 설득력이 있었고, 그녀 덕분에 저도 언젠가는 반드시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1. 일본 취직에 대한 가족의 반응

저는 일본으로의 취직에 대해 가족에게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일본에 취직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가족들은 대학원에 진학 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충동적으로 결정한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결정 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상상했던 세계를 구현하고 싶다는 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신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는 일본으로 취직하고 싶다는 저의 생각과 미래계획을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또한, 제가 일본 취직을 위해 SCIT마스터 과정을 진행하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공부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가족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라이프플랜

저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저와 맞는 좋은 사람을 만나면 결혼을 하겠지만 만나지 못한다면 혼자서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에 대해서는 결혼했을 경우, 일본에서의 생활이 안정되고, 부모가 될 준비가 충분히 되었을 때 아이를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므로 결혼 또는 출산과 상관없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보다 일본이 여성 프로그래머에게 기회가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습니다.